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혹독한 겨울을 지낸 나무들이 새순과 꽃을 피어 내는 시간이 되고 지난 1월 단체의 소식으로 힘든 가운데, 2월 이 나라의 큰 지진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3월 트라우마 치유 세미나에 참석하고 지진 피해 이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4월 회교도들의 금식기도 기간이 끝나자 집 월세 재계약 기간 전에 집세 인상을 위한 연락이 왔고 제가 이사한지 5년이 되어서 집주인이 월세인상의 권리가 있어서 부동산의 중개인을 보내서 집크기를 재고 상태를 확인하여 집세를 결정하는 과정에 이사를 대비해 주변의 월세와 인터넷 부동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서 200~300% 이상 너무나 큰 인상폭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엡6:18)”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전신 갑주를 입고 집을 알아봤는데, 현재 가격에서 100% 인상해도 이 도시에서는 지하방도 못 구하는 가격….. 성령께서 집주인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현재 3,250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14,000정도인데 저에게는 특별히 8,500으로 해 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즉시 수락을 했습니다. 한국도 전세계도 물가 상승으로 어렵지만 이곳은 지진 이후에 이주민들이 각도시로 흩어지면서 집세 인상이 처음 경험하는 %가 되었고 물가도 매주 인상되는 것이 달걀을 가격이 지난주 3 이번주에는 3,5여서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수수께끼이고, 14일은 선거가 있는데 결과 이후에 이 나라가 안정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 할 수 있는 땅이기를 기도합니다.

 E시의 S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 약 700 Km의 거리인데 유치원 교사인 S의 여동생 M이 30분 거리의 도시에서 사는데 함께 제 자동차로 다녀왔습니다. 출발 전날 M의 집에서 자고 다음날 새벽4시에 출발해서 국도인지라 천천히 운전했더니 오후 4시에 도착했고 돌아오는 날은 아침 9시에 출발해서 M을 내려주고 집에 왔더니 저녁 9시가 넘었습니다. M이 출근해야 해서 짧은 일정이었지만 S의 텃밭에 지난 가을 이 도시에서 주워 두었던 은행도 심고, 들깨씨와 방풍 씨, 고구마 종자도 심고 왔더니 입술이 텄습니다. 언어로 전달하지 못하는 복음을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간간히 주님이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나누었습니다. 조리학과 선생으로 정년 퇴임한 68년생 S와 48살 M은 미혼이고 저보다 나이도 어려서 서로의 집을 오가며 숙박도 할 수 있어서 속 깊은 대화 중에 성령께서 이들의 영혼을 만져 주셔서 구원에 관한 이유를 묻는 때를 기도합니다.

 H부인은 외손자를 돌보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막내딸 Z의 국가대표 수영선수 뒷바라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도 남쪽도시 안탈리야로 남편과 함께 딸의 수영대회 참석을 도우려고 갔습니다. 이 가정과 오래 교제하고 있는데 주께서 택한 영혼이 있기를, 제가 지치지 않고 깨어 기도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아제리 무스태김의 막내딸은 7월 18일에 결혼을 한다고 소식을 전해왔는데, 제 거주비자 마감이 7월 13일이라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장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방문할 때를 위해 지혜를 구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나누었던 심한 비염과 피부 가려움은 약을 먹으면 가라앉아서 계속 약으로 버티고, 오른쪽 팔이 앞뒤로 움직일 때 통증이 조금 있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픈 사역자들을 보면 저는 성인병도 없고 나이에 비해 체력이나 건강이 비교적 괜찮아 보이지만 스트레스 상황을 견디고 압박과 긴장을 이기는 힘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다음달에는 거주 비자 서류 준비와 접수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요일 3:2)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불확실성에 은혜로 하루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노트북이 바이러스로 문제가 생긴 이후에 전원 접촉이 잘 되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전원이 연결되어 급히 편지를 쓰고 마무리합니다.

동역자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 아뢰어야 할 기도제목들을 성령께 의탁하며 육체가 연약한 분들과 연약한 영혼에도 주의 은혜와 긍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평안으로 감사와 기도를 나눕니다.

 2023. 5. 4. 김에스더 드림

 